

## 1 개요

조천읍 신촌리에 있는 강초관물과 관련된 지명 전설이다.

## 2 내용

신촌리 동수동 입구에 강초관물이 있었다. 6백여 년 전, 신촌리에 사는 강 초관(哨官)이 상(喪)을 당해 지관을 청해 구산(求山)을 다녔다. 지관을 여러 곳을 찾아다니다가 강초관물 자리를 찾았다.

지관은 정자리를 골라, 그곳에 장사를 지내고, 혹 돌이 박혀 있으니 돌을 파지 말고 얇게 장사를 지내라고 했다. 장삿날 일꾼들이 광중을 파다가 돌이 박힌 것을 보고 그것을 파내려 하니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갔다. 뒤이어 그 자리에서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.

그 비둘기는 그 묘맥(苗脈)의 정기였다. 정기가 날아갔으니 그곳에 장사를 지낼 수 없었다. 그 뒤 샘이 계속 솟아서 못이 되었는데, 강 초관이 묘를 쓰려던 자리여서 그 물을 강초관물이라 했다.

## 3 특징

사람에 따라서 ‘강초간물’ 이야기로도 일컬어진다.

## 4 핵심어

강초관물, 강초간물, 신촌리, 동수동, 강 초관, 지관, 구산

## 5 원전 서지사항

강초관물(제주도, 《제주도전설지》, 1985)

## 6 관련 자료